

1.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바른지식을 가진율도 높았으나 실천율에 있어서는 경제정도 상위층에서 높았다.
2. 일반적으로 지식보다 실천율이 낮은 경향이다.
3. 예방접종 장소는 대부분이 보건소였으며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예방접종의 종류에 대한 지식과 실천율도 높았다.
4. 분만장소는 의료기관보다 가정분만이 높았으며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가정 분만율이 높았고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의료기관내 분만율이 높았다.
5. 이유식품으로 가장 좋다고 응답한 것은 우유였으나 실제 많이 이용한 식품은 과일류였다.
6. 태출의 처리에 대해 바른지식과 실천 모두가 30~34세군에서 가장 높았고 경제정도 및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소독된 기구의 사용율이 높았다.
7. 이상적 이유시기는 경제정도와 무관하였고 50세이상군에서 지식과 실천의 차이가 가장 좁고 30~34세군에서 가장 차이가 컸다.

일부 농촌지역의 의료방법에 관한 인식 및 이용 실태

간호학회지, Vol. 8, No. 2, pp. 25~37, 1978.

최 남 희

1. 결론

- 1) 총 139명의 응답자 중 대부분이 질병치료와 관련해서 의사와 약국의 기능을 인정했고, 무속적인 방법을 지지하는 경우는 단 1명이었다.
- 2) 가장 높은 신뢰를 받는 것은 의사의 진료였고, 다음이 약국이었다. 한방의료는 민속요법보다 높은 신뢰를 받았으나, 실제사용에서는 민속요법보다 낮은 편이었는데 이는 어느정도 의료비의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 3) 상당한 정도의 의료수요자들은 의사와 약국을 이용하는 한편으로 한방의료 및 민속요법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으나 한편 무속적 경향을 갖는 보건의식에 따른 형태는 매우 미약했다.
- 4) 이 지역 주민들에게 있어서 전통의료는 무속적인 방법과 분명히 구분되어 판단되며 합리적 사고 속에서 전통의료는 현대의료와 공존하고 있다.
- 5) 상병자별 의료수단의 이용은 의사의 이용이 가장 많았고(37.9%), 약국이 그다음이며, 민속요법의 사용보다는 한방요법의 사용이 많았다.

2. 제언

1) 농촌주민들의 전통의료는 무속적인 방법과는 분명히 구별을 해야하며 전통의료에 사용되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2) 보건수요자에 관한 보건의식과 의료요구 형태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3) 농촌주민들의 전문의료기관 이용율을 합리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4) 본연구는 계속적인 추적연구와 농촌분류의 3대 유형 중 본 논문에서 취급하지 않은 다른 2유형의 농촌에 대한 조사연구가 더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 참고가된 여러 연구조사를 앞서 이루어놓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일부 농촌지역 가족계획 풍문과 실천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Vol. 8, No. 2, pp. 63~74, 1978.

추 수 경

A. 결론

농촌지역에 유포되어 있는 가족계획 풍문의 실태를 파악하고, 실천과의 관계검토를 목적으로 하여 경기도 강화군 4개면의 전지역수가 60이었으나 분석이 가능한 55개 지역만이 연구대상이 되었다.

이 지역의 가족계획 대상자의 가족계획 실태를 묶어 소지역 가족계획 실태를 산출하였고, 풍문은 소지역 가족계획 자원 지도자(새마을지도자, 건강요원)가 들은 빈도를 소지역 풍문 빈도로 간주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가족계획에 관한 풍문은 피임방법별로 조사한 결과, 정관술에 관한 풍문보다 자궁내장치, 먹는피임약에 관한 풍문을 많이 듣고 있었고, 자궁내장치, 먹는피임약에 대해 듣고 있는 풍문내용이 개별 가족계획 대상자를 분석단위로한 최 박의 풍문에 관한 기존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풍문에 관한 연구는 개별 가족계획 대상자가 들은 풍문과 새마을 지도자 건강요원이 들은 풍문을 소지역을 대표하는 풍문의 자료로 사용하여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미루어, 본 연구가 채택한 소지역 분석방법을 시간, 경제, 인력, 분석과정의 간편성을 고려하여 많이 기용할 것을 권장한다.

2. 새마을 지도자 건강요원의 인구 사회경제학적 특성과 풍문과의 관계에서는 인구학적 변수에서 자녀구성과는 무관하며, 성별 연령과는 상관관계를 보이나, 피임방법